

2015학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초등특수교사 임용합격자 김소리

저는 졸업 후 바로 기간제 일을 시작하고 계약기간 종료 후 바로 공부를 시작하여 2년 공부 끝에 합격이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의 이야기와 공부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4학년 때 나가는 교생실습 시에는 쏟아지는 많은 과제에 공부를 하는 것은 힘들 것으로 생각하시고 마음 편하게 학교생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생 실습때 만나는 학생들과 최대한 라포를 형성하고 학생의 수준과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공 공부를 할 때 담당 학생들의 특성과 수준에 적용하여 이해력을 향상 시킬 수 있고 2차 수업실연 준비 시 문제행동 중재 및 학습목표 설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4학년 때 전공 공부는 강사의 이론서만 읽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당시에는 임용에 큰 뜻이 없었고 목표의식이 없어 공부에 대한 의지가 없어서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초등교육과정은 구자경 강의(기본이론, 각론)를 들었고 교육과정 강의는 이때 들은 강의와 자료를 가지고 계속 공부했습니다. 이 당시에 각론공부가 정말 재미있었고 흥미롭게 느껴져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일반 교대생들처럼 공부를 해서 이후에 별다른 초과정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공부할 때 열심히 한 게 나중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졸업 후에는 공부만 할 자신이 없어서 기간제를 구했습니다.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인턴교사로 1년을 근무했습니다. 단 기간제를 하면서 주말에는 스터디를 했습니다. 이때 했던 스터디가 공부 방법에 대한 방향을 잡게 해주고 공부 흐름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거 같습니다.

기간제가 끝난 후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량진을 가기 보다는 집에서 편한 마음으로 공부를 시작했고 강사의 강의에 의존하기 보다는 가지고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강사의 강의를 듣느냐 혼자서 공부하느냐는 본인의 공부 스타일에 맞게 고민하시고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각자의 공부법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공부 방법을 적용하고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을 택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2013년 추시 때는 대략 3~6점정도 차로 1차에서 떨어졌고 이후 2013 정시 때 1차에 합격했습니다.

2013년(2014학년도)	2014년(2015학년도)
1차 합격: 컷보다 2.67점 높음	1차 합격: 컷보다 7.67점 높음
2차 불합격: 컷보다 0.6점 낮음	2차 합격
전공공부가 부족, 특과정을 고루 암기하지 못함, 면접에서 많이 부족함	작년의 면접을 고려하여 면접을 집중적으로 연습함 결과적으로 40점 만점 중 39.08점을 받음

2013년도에 가장 큰 불합격 요인은 면접이었습니다. 지도안과 수업실연에 비중을 높게 두고 두 가지 부분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한 덕에 두 영역의 점수는 높았으나 면접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 해 시험에서는 면접의 비중을 높여 공부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3가지 영역 중에서 면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는 만큼 나온다.’라는 말의 의미를 직접 느낄 수 있게 해준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시작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이 임용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용어들의 의미를 몰라서 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용어 풀이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전공	교육과정
-각론: 청각장애 교육, 시각장애 교육 등 -개론서: 특수교육의 이해 등 -이론서: 강사들 책	-교학방평: 교수학습방법+ 평가 -각론: 일반초등교과서내용(과학, 미술, 실과의 교과지도 내용) -기본이론: 교육학처럼 학자들이 각 교과별 지도 방법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을 설명한 것 - tip: 기본이론은 크게 변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책이 있다면 굳이 최신의 책을 살 필요는 없음 -지충: 지도서 총론의 줄임 말로 교사용지도서 맨 앞장에 ‘총론’이라고 쓰인 내용을 말함. 지충에서는 기본이론의 내용도 다루고 교수학습 모형을 제시함 - tip: 기본이론과 지충에서 제시되는 교수학습 모형의 단계나 명칭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구분하여 외우는 것이 필요함 지충의 내용은 교육과정 개정 시(즉 지도서 개정 시) 매번 바뀌므로 강사들의 자료나 지도서 내용을 개정된 최근의 것으로 가지고 있어야 함

위와 같은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특수교사를 꿈꾸며」와 「초등임용 고시함께해요」와 같은 임용준비 카페에서 자료를 구하거나 질문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임용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어려움을 표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고민했던 부분과 후배 분들이 임용에 대해 알아 두셨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 간략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학성적 vs 임용 = 내신 성적 vs 수능성적” 대학 시험과 임용 시험의 스타일은 많이 다릅니다. 수능이 우리학교 학생들만의 성적 비교가 아닌 것처럼 임용 역시 전국의 특수교육과 사람들과의 경쟁임을 염려해두고 내 옆의 친구가 아닌 타 학교, 타 지역 사람들과의 경쟁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주변 친구들의 노력이나 실력에 의해 좌우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친구들 < 타 학교 다양한 연령층 (스터디)” 스터디를 할 때는 친구들이 아닌 타 학교의 다양한 연령층과 다양한 경험자들과의 스터디를 구성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타 학교의 정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용 경험자, 경력자들의 노하우와 공부 방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친구들과의 스터디는 술터디, 밥터디로 마무리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능하면 친구들과의 스터디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각론서 파기<< 기출문제 파기” 초등의 경우 각론서의 신이론이나 심화개념보다는 기출에 나왔던 개념이 확장되어서 출제되는 문제가 많습니다. 따라서 기출문제를 충분히 이해한 후에 부족한 부분이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각론서에서 찾아 공부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넷째**, “노량진? 집? 도서관? 독서실?” 많은 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노량진을 가야 합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공부 장소 마다 자신에게 빗대어 장단점을 비교한 후 자신에게 맞는 환경에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억해 둘 것은 ‘어디서든 공부만 하면 된다.’입니다. **다섯째**, “서브노트는 서브노트답게 만들기” 많은 분들이 서브노트를 만들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브노트는 최대한 간략하게 내가 적은 서브노트 내용을 통으로 암기할 수 있을 만큼의 양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세한 내용이 아닌 전체 흐름과 틀을 알 수 있게 만들어야 서브노트를 포기하지 않고 완성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특수교육학 전체 틀, 흐름 확

인하기”하나 하나의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려 하기보다 나와 있는 용어를 암기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좀 더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한 후 기출분석을 해야 기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집은 본인에게 맞는 책을 정하여 무한으로 반복해서 보고 나와 있는 개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을 포함하여 여백에 적어 놓으면 좋습니다. 이후에 다시 반복할 때 관련된 주변 개념 적고 반대되는 개념을 적은 후 유사한 개념 적어 점차 개념을 확장해 나가고 타 개념과 연계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특수교육과정의 암기’ 특과정은 공부를 시작함과 동시에 매일 공부하고 무조건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리 처음부터 암기를 시작해야 잊어버리더라도 다시 암기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밑줄>빈 칸(단어)>구>문장으로 확장하면서 외우는 것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약해서 외우거나 빈 칸으로만 외우면 놓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과정 공부는 일초교육과정(기본이론, 각론, 지층)과 같이 하는 게 전반적인 교육과정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초과정은 강사의 강의를 들으면서 하는 것이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 여겨집니다. 논술과 관련된 부분은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자주 써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개별화교육지원팀, 선정 배치 절차 등 기본적인 것만 외울 것이 아니라 주변까지 확실히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에는 기초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가 되었던 반면에 최근에는 주변의 것이나 세부적인 내용까지 나오기 때문에 미리 자주 자주 눈에 익혀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합격이라는 것이 아직은 낯설고 나와는 너무 먼 이야기라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보니 먼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내 옆에 바로 붙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동기들의 대학 성적을 비교하면서 나는 힘들겠지 하고 생각하거나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안됐는데 나는 불가능 하겠구나...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임용 공부는 그런 것과는 상관없습니다. 꾸준히 내 공부스타일에 맞게 놓지 않고 열심히 하면 누구나 다 합격이라는 기쁜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그 곳에서 합격 강의를 하는 선배들을 보면서 나도 저 자리에 서서 합격을 이야기하는 날이 올 수 있을 까? 고민하고 좌절하던 때가 있었다는 걸 항상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과 불안감과 좌절감을 저 역시도 경험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합격이라는 것이 특정한 누구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